

Daniel: 28 – Sermon Notes

Title: “Daniel's vision of the ancient of days”

Scripture: Daniel 7:9-14

Date preached: December 29th 2024

<p>Scripture: Daniel 7:9-14</p> <p>9 “I watched till thrones were put in place, And the Ancient of Days was seated; His garment <i>was</i> white as snow, And the hair of His head <i>was</i> like pure wool. His throne <i>was</i> a fiery flame, Its wheels a burning fire; 10 A fiery stream issued And came forth from before Him. A thousand thousands ministered to Him; Ten thousand times ten thousand stood before Him. The court was seated, And the books were opened.</p> <p>11 “I watched then because of the sound of the pompous words which the horn was speaking; I watched till the beast was slain, and its body destroyed and given to the burning flame. 12 As for the rest of the beasts, they had their dominion taken away, yet their lives were prolonged for a season and a time.</p> <p>13 “I was watching in the night visions, And behold, <i>One</i> like the Son of Man,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He came to the Ancient of Days, And they brought Him near before Him. 14 Then to Him was given dominion and glory and a kingdom, That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should serve Him. His dominion <i>is</i> an everlasting dominion, Which shall not pass away, And His kingdom <i>the one</i> Which shall not be destroyed.</p> <p>9 내가 또 보고 있을 때 왕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으며 바퀴가 달린 그 보좌는 불꽃처럼 타올라 10 그 앞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 나왔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수백 만이나 되었고 또 수억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며 법정이 열리고 거기에는 책들이 펼쳐 있었다.</p> <p>11 그 작은 뿔이 자랑하며 떠들어대는 소리에 내가 보니 넷째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는 절단되어 불 속에 던져졌으며 12 그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일정한 기간 동안 생명만은 살아 남도록 되어 있었다.</p> <p>13 내가 또 밤의 환상 가운데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주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그 권세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p>

Review

Before we dive into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take a few moments to remind ourselves of

where we are in the story.

Last time we started chapter 7. I drew your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is chapter marks a significant transition point in the Book of Daniel. The first six chapters tell us about the experiences of Daniel and his friends in Babylon. Chapter 7 however shifts to detailing four of Daniel's visions or dreams. The language and genre of writing used reflects this shift. The first six chapters are written in a straightforward narrative style. They are easy to read and understand. From chapter seven onwards things become more difficult. This section is written in a style of writing known as apocalyptic. This genre of writing is not widely used in scripture. However it is used here in Daniel, in the first three chapters of Ezekiel and in Revelation. It is a complex and challenging form of writing. There is much I could say here but allow me to briefly highlight four characteristics of apocalyptic writing;

- It often uses symbolic images which convey complex ideas.
- Its themes are often of spiritual conflict with a stark contrast between good and evil.
- Its focus is often centred in the prospect of impending doom.
- It frequently outlines time-lines that give a historical perspective of world history.
- Often it presents accounts of destruc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universe which point towards a new world and earth and a golden age to come.

So please keep these things in mind as we make our way through the second half of Daniel.

As we begin chapter 7 we are actually going back in time. Daniel is not writing chronologically. So the things we are reading here are not taking place following his miraculous escape from the lion's den. In fact he is taking us back in time to the first year of the reign of King Belshazzar. This was in the year 553 BC. This means we are going back about 14 or 15 years. It was in this year that Daniel experienced the first of four dramatic and disturbing visions.

In this first vision Daniel is sleeping when he receives this vivid vision (dream) from God. In the dream he sees the Great Sea (The Mediterranean) being stirred up by the four winds of heaven. As he watches he sees four beasts emerging from the waters.

There is some debate as to what these beasts represent. I recently listened to an interesting sermon in which the pastor made the case that they are four world empires that emerge just before the end times. The lion with eagle wings for example symbolises a union of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Britain has long had a lion as its standard and the US the eagle. He made a good case for this position, but I don't personally think this is what they represent. I believe they are connected to the dream King Nebuchadnezzar had back in Daniel chapter 2. Let's look at each beast in turn.

The first beast to be described is a lion with eagle wings on its back.

A lion eagle hybrid. This fearsome creature represents I believe the empire of Babylon. As I pointed out last time a winged lion was a symbol they frequently used.

As Daniel watches the wings are plucked off and the creature is lifted to stand on two feet. Again there is much debate about what exactly this means. It seems probable that it indicates one of two things.

It either represents what happened to Nebuchadnezzar when he temporarily went insane, or it reflects the rapid decline of Babylon after he died.

The second beast to emerge from the waters was like a bear. It was raised up on one side with three ribs in its mouth. This creature represents the empire of the Medes and Persians.

The fact that it is slightly raised on one side indicates that the Persians were the dominant partner in their union. The ribs probably stand for the three notable cultures that the Medo-Persian empire would eventually conquer; Egypt, Assyria, and Babylon.

The third beast is another hybrid creature. It is a four headed leopard with four birds wings on its back. The empire or kingdom symbolized by this beast is the Greek empire ruled initially by Alexander the Great. The winged leopard symbolises the speed with which they progressed and captured nation after nation. The four heads depict how the empire was divided up following the early death of Alexander. As history records the empire was split between his four most important generals.

The final beast which Daniel witnesses is the most hideous of them all. It is so monstrous in appearance that it is not likened to any earthy creature. No earthly animal can be evoked to represent the horror of this beast. This creature represents the Roman Empire. They were indeed a mighty power in the world that crushed and dominated all they encountered.

Daniel tell us that this beast was different to the others. It had ten horns on its head. Most commentators believe this to be a reference to a “revived Roman Empire” that emerges in the end time period. Shortly after the rapture of Christ church the seven year tribulation period will begin. This is when this empire will emerge and flourish. Because it is connected to Rome, or Europe in some way it is not considered as the birth of a new empire.

The ten horns represent ten kings who will unite together in this global kingdom. As Daniel watches a small horn appears. This horn has the eyes and mouth of a man. It uses this mouth to speak pompous or boastful words. The little horn watches as three of the other horns are plucked out by the roots. This represents the usurping of their power by the little horn. The little horn represents the Antichrist. In this final earthly kingdom he will arise and take control of this global world system. I will speak more on this later.

In our passage today we will consider the next part of Daniel's vision. Before we do would you join me in prayer.

오늘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7 장을 시작했습니다. 7 장이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여섯 장은 바빌론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7 장은 다니엘의 네 가지 환상에 대한 설명으로 전환됩니다. 사용된 언어와 문체가 이런 변화를 반영합니다. 처음 여섯 장은 일어났던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7 장부터는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은 묵시록이라고 알려진 글쓰기 스타일입니다. 이 장르는 성경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의 처음 세 장, 요한 계시록에서 사용됩니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글쓰기 형식입니다. 이에 대해 할 설명이 많지만 묵시록 장르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간략하게 강조하겠습니다.

- 종종 복잡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 주제는 종종 선과 악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영적 갈등입니다.
- 초점은 종종 임박한 파멸의 전망에 맞춰집니다.
- 세계 역사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하는 타임라인을 자주 설명합니다.
- 종종 새로운 세계와 지구, 다가올 황금기를 가리키는 우주의 파괴와 변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후반부를 읽을 때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7 장을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은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 장 내용은 사자굴에서의 기적적인 탈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벨사살 왕 통치의 첫 해인 기원전 553 년이었습니다. 즉, 약 14 년 또는 15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니엘이 네 번의 극적이고 괴로운 환상을 보았는데 그 중 첫 번째

를 본 것이 이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첫 번째 생생한 환상(꿈)을 받을 때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사방에서 바람이 몰아쳐 대해(지중해)가 격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켜보는 동안 그는 물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목사가 이 짐승들은 종말 직전에 등장할 네 개의 세계 제국이라고 주장하는 흥미로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는 영국과 미국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사자를 상징으로 삼았고 미국은 독수리를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기 주장을 요령있게 설명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각 짐승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사자와 독수리가 섞인 형태입니다. 이 두렵게 생긴 짐승은 바빌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날개 달린 사자는 그들이 자주 사용한 상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짐승의 날개가 뿔하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일시적으로 미쳐버렸을 때 일어난 일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가 죽고 난 후 바빌론 제국의 급격한 쇠퇴를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습니다. 입에 갈비뼈 세 개를 문 채 앞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메대-페르시아 제국을 나타냅니다. 짐승의 한 쪽이 올라와 있는 사실은 그들의 연합이 대등하지 않았고 페르시아가 우세했음을 나타냅니다. 갈비뼈는 아마도 메대-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한 세 개의 주요 문화, 즉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등에 네 개의 새 날개 같은 것이 있고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그리스 제국입니다. 날개 달린 표범은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확장하면서 여러 나라를 순식간에 정복했는지를 상징합니다. 네 개의 머리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제국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묘사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제국은 그의 가장 중요한 네 장군들이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다니엘이 목격한 마지막 짐승은 가장 흉측합니다. 너무나 괴기해서 지상의 어떤 짐승과도 비유될 수 없습니다. 이 짐승의 공포를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강력한 세력이었으며, 그들이 마주친 모든 것을 짓밟고 지배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이 다른 짐승들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 짐승은 머리에 열 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짐승이 마지막 시대에 출현할 "부활한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휴거 직후에 7년 환난 기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 이 제국이 출현하여 번성할 것입니다. 이 제국은 로마 또는 유럽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열 개의 뿔은 이 전지구적인 왕국에서 함께 연합할 열 명의 왕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지켜보는 동안 작은 뿔이 나타났습니다. 이 뿔은 사람의 눈과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입을 사용하여 거만하거나 교만한 말을 내뿜습니다. 작은 뿔은 다른 세 뿔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는 작은 뿔이 그들의 권세를 찬탈함을 상징합니다.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이 마지막 지상 왕국에서 권력을 잡고 전지구적인 세상 체계를 장악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환상의 다음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 “I watched till thrones were put in place, And the Ancient of Days was seated; His garment was white as snow, And the hair of His head was like pure wool. His throne was a fiery flame, Its wheels a burning fire;

Daniel saw in his dream the rise and fall of four kingdoms; Babylon, the Medo-Persians, Greece and Rome. He was viewing these kingdoms as they emerged onto the earth. Now however the imagery shifts. We are leaving the earth and are now in the heavenly realm.

Or to be accurate in the heavenly court. Daniel will now get to witness the most important kingdom of them all. God's Kingdom. He will get to see how God judges the kingdoms of men.

As Daniel watches he sees that thrones were put in place. A throne of course is the seat of a monarch or ruler.

The prophet Ezekiel also portrays God seated upon His throne in dazzling splendor (Ezekiel 1:26–28). Revelation chapter 4 also describes the Lord on His throne. The fact that the plural form (thrones) is used here tells us that God and His team of elders or judges are to be seated to rule or judge on a matter. When the Apostle John received his vision of heaven this is what he saw;

Around the throne were twenty-four thrones, and on the thrones I saw twenty-four elders sitting, clothed in white robes; and they had crowns of gold on their heads. (Rev 4:4)

Daniel then gives us the detail that he saw the **Ancient of Days** seated. Who you may ask is the Ancient of Days? The term appears just three times in scripture. And all three are in chapter 7 of Daniel. There are two views on whom this may be. Some make the case for it being the Lord Jesus Christ. I am not persuaded by this, verse 13 I think makes this highly unlikely.

Therefore I believe that the Ancient of Days is a reference to God the Father.

It's an appropriate title for the first person of the trinity. In Isaiah 43:13, we find that God refers to Himself existing from **ancient of days**. He means that He existed literally, “before days were days.” Days, as we know them only came into existence when God created the sun and moon. So the term ancient of Days emphasizes God's eternity. It serves to remind us that He has existed since eternity past. There was never a time, nor will there ever be a time when He is not in existence.

It is He who has planned all things and is now working out His plan.

Daniel then goes on to give us a brief description of the Ancient of Days. Remember that apocalyptic writing uses a great deal of symbolic imagery. The images that are being described are designed to show or represent something beyond themselves. This means that we are not to take what we read here as being a literal description of what God looks like. I know some people like to picture God as a white bearded old man sitting on a cloud. As I hope you all appreciate God the Father is spirit. He does not have a body, or white hair nor does He wear clothes.

We are told He is dressed in a garment that is white as snow. The colour white is symbolic of purity and holiness. Wedding dresses today are white to represent the bride's purity. So we are to understand this description as telling us something important about the character and nature of God. We are to know that He is perfectly pure and holy. There is no spot, stain or blemish upon His character.

We are also told that His hair was like pure wool. In some translations the whiteness of the hair is highlighted. This I think is what Daniel is attempting to convey. Not that the hair has the texture or feel of wool. But rather that it is white in colour. The symbolic imagery here suggests a wise head. A person in possession of maturity in judgement and wisdom. White hair is often associated with wisdom and age in the Bible. It is regarded as a crown of glory for those who have lived righteous lives.

We then read about the throne being **a fiery flame, Its wheels a burning fire**. Fire, smoke, and cloud were symbols of deity. God was believed to be present in all of these. There is considerable

debate as to what is meant here in this description.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what Daniel was witnessing was so amazing that it lay beyond his descriptive abilities. It would be rather like us using a time machine to transport someone from 200 years ago into the present. What would they make a jet airplanes, smart phones and TV's? Therefore it is impossible for us to say with complete certainty what Daniel saw.

What I think we can say is that he saw a brilliant manifestation of God's splendour and the fierce fiery heat of His judgment. There seems to be something almost lava-like in the stream of fire pouring from the throne.

The prophet Isaiah described God's judgement in terms of fire.

**15 For behold, the LORD will come with fire
And with His chariots, like a whirlwind,
To render His anger with fury,
And His rebuke with flames of fire.**

**16 For by fire and by His sword
The LORD will judge all flesh;
And the slain of the LORD shall be many.
(Isaiah 66:15-16)**

The throne we read had burning wheels. Many commentators say that in the ancient eastern world royal thrones were often on wheels. This enabled them to be moved around easily. Others think the throne is like a chariot in some way. However it may just be that that the wheels are there to represent the endless activity of God. They convey the idea that God is always moving and active in His creation. That He can travel in any direction at will. So it therefore speaks to His omnipotence and omnipresence.

Let us read on.

9 내가 또 보고 있을 때 왕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으며 바퀴가 달린 그 보좌는 불꽃처럼 타올라

다니엘은 꿈에서 네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는 이 제국들이 이 땅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미지가 바뀝니다. 지상을 떠나 하늘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늘의 범정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왕국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을 어떻게 심판하시는 지 보게 될 것입니다.

지켜보는 동안 다니엘은 왕좌들이 놓인 것을 봅니다. 왕좌는 물론 군주나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예언자 에스겔도 눈부시도록 광채나는 모습으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에스겔 1:26-28). 요한계시록 4 장도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신 것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복수형(왕좌들 thrones)이 사용된 사실은 하나님과 그분의 장로들 또는 재판관들이 다스리거나 재판하기 위해 앉아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대한 환상을 받았을 때 그가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계 4:4)

이어서 다니엘은 옛 적부터 항상 계신 **the Ancient of Days** 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옛 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누구일까요. 이 용어는 성경에 단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모두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말에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13 절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 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첫 번째 인격에 적합한 칭호입니다. 이사야 43:13 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초 ancient of days** 로부터 존재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날들이 날들이 되기 전 before days were days "에 존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날들 days 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Ancient of Days 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옛 적부터 항상 계신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합니다. 종말론적 글은 상징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지는 그 자체를 넘어서 다른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고안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표현된 내용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름 위에 앉아 있는 흰 수염을 기른 노인 으로 묘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 spirit 이십니다. 그분은 몸의 형태도 없고 흰 머리카락도 없으며 옷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눈처럼 흰 옷을 입고 계시다고 합니다. 흰색은 순수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웨딩드레스는 신부의 순수함을 나타내기 위해 흰색입니다. 따라서 이 묘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대한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순수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에는 얼룩이나 흠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머리카락이 깨끗한 양털같다고 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머리카락의 흰 색깔이 강조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카락이 양털의 질감이나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색상이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 이미지는 지혜로움을 암시합니다. 판단력과 지혜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 성경에서 백발은 종종 지혜와 나이와 관련됩니다.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다음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a fiery flame, Its wheels a burning fire 이라고 묘사합니다. 불, 연기,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존재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묘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목격한 것은 너무나 놀라워서 그의 표현 능력을 넘어섰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타임머신을 사용하여 200 년 전의 누군가를 현재로 데려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체트기, 스마트폰, TV 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는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찬란함과 동시에 그분의 맹렬하게 뜨거운 심판의 열기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길에는 용암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과 관련하여 묘사했습니다.

15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과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16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사야 66: 15-16)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에 불타는 바퀴가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고대 동양 세계의 왕좌가 종종 바퀴가 달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좌가 어떤 면에서 병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이 없

는 활동을 표현하기 위해 바퀴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상대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분은 뜻대로 어느 방향으로든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분의 전능함과 무소부재함을 말해줍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10 A fiery stream issued And came forth from before Him. A thousand thousands ministered to Him; Ten thousand times ten thousand stood before Him. The court was seated, And the books were opened.

God presence being accompanied by fire or streams of fire is a common element throughout the Hebrew Scriptures, and in early Jewish literature. In Genesis, God's presence is depicted as a smoking fire-pot (Gen 15:17). In Exodus He appears in a burning bush (Exod 3:2-4), as a mountain that quakes and smokes (Exod 19:18) and as a pillar of fire that leads Israel in the wilderness (Exod 14:24; 40:34-38).

On this occasion the references to a fiery stream, or a river of fire coming from before God speak to His judgement. Fire is often used in the bible to refer to the testing (purifying) of things. Fire is applied so that an accurate assessment can be made of an object worth. Fire destroys some things but leaves others intact. So the idea here is that God's fire will test those charged within His court.

We then read about the vast multitude who had gathered in this place. Let's do some basic maths. A thousand thousands is one million. Ten thousand times ten thousand is one hundred million. Are we to take these numbers literally? Not necessarily, though God does have vast legions of angelic beings at His disposal. At times in scripture the term "ten thousand" is sometimes used metaphorically to mean "very many."

We use such terms in a similar way today. How many people were at the department store sale? Oh, there were "thousands." We didn't literally count the people at the store we are simply using this generic term it to mean a "great many."

One commentary I read said that the one million ministering to Him were angels. The 100 million standing before Him is humanity as they stand in judgement. Whatever the case the point to take from all of this is that God commands an awesome, overwhelming force of spiritual beings.

At the appropriate time the court was seated.

People stand in silence in a courtroom when the judge arrives.

It is seen as a mark of respect for the office he or she holds. When the judge takes their seat everyone else can be seated and the court is now in session. It is time for the proceedings to begin. In this instance it is time for the "little horn" to be judged. We are told here that **the books** were opened. What books are in view here?

10 그 앞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 나왔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수백만이나 되었고 또 수억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며 법정이 열리고 거기에는 책들이 펼쳐 있었다.

불이나 불길의 수반되는 하나님의 임재는 히브리어 성경 전체와 초기 유대 문학에서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연기 나는 화로로 묘사됩니다(창 15:17). 출애굽기에서는 불타는 떨기나무(출 3:2-4), 크게 진동하며서 연기가 자욱한 산(출 19:18),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불기둥(출 14:24; 40:34-38)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 나온다는 언급은 그분의 심판을 말합니다. 불은 종종 성경에서 시험(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불은 어떤 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것은 불에 의해 파괴하지만 또 어떤 것은 온전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불이 그분의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곳에 모인 많은 무리에 대해 기록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계산을 해봅시다. 천의 천은 백만입니다. 만의 만은 일억입니다. 여기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사 군단을 많이 두셨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만 ten thousand"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매우 많다"는 의미로 은유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합니다. 백화점 세일에 몇 명이나 왔어요? "수천명 thousands"이 왔어요. 매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지 않고 이 용어를 단순히 "매우 많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제가 읽은 한 주석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만 명은 천사들이고, 그분 앞에서 있는 1억 명은 심판을 받는 인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여기서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경이롭고 강력한 영적 존재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법정(heavenly court)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도착하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고 침묵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판사라는 직책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으면 다른 모든 사람도 앉을 수 있고 법정이 개시됩니다. 이어서 재판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에는 "작은 뿔"이 심판받을 때입니다. 여기서 책들 books 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 책들은 어떤 책들일까요?

The Bible mentions a number of what we might term “heavenly” books. I should note that the bible at no time refers to these books using this exact term. However there are several references throughout scripture that indicate that God is keeping a record of things in books. Among the best know of these are the following.

1	The book of life / Book of the living / The Lambs book of life (Psalm 69:28, Luke 10:20, Rev 20:15, 21:27) In this book, God records the names of every person who is going to be in Heaven.
2	The book of remembrance (Malachi 3:16) In this book, God keeps record of the good deeds of those who love Him.

So it may have been any combination of these books that were opened up to be examined. Others think the books in question were the lawyers briefs. The “books” are a reference to the notes that lawyers take with them into court. These “books” are opened in response to the boasting and blasphemy of the "little horn." They contain all the evidence needed to present the case against the accused (the Antichrist). God of course already has a record of all the "little horn's" sinful thoughts, words, and deeds (Isaiah 65:6–7; Hebrews 4:13). This means that the judgment on the little horn will be accurate and fully deserved.

Let us continue.

성경은 우리가 "천상의 heavenly " 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천상의 heavenly " 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불리는 책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책에 어떤 것들을 기록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The book of life / Book of the living / The Lambs book of life (Psalm 69:28, Luke 10:20, Rev 20:15, 21:27)
----------	---

	<p>In this book, God records the names of every person who is going to be in Heaven.</p> <p>생명책 / 산 자의 책 / 어린양의 생명책 (시편 69:28, 누가 10:20, 요계 20:15, 21:27) 이 책에서 하나님은 천국에 갈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p>
2	<p>The book of remembrance (Malachi 3:16)</p> <p>In this book, God keeps record of the good deeds of those who love Him.</p> <p>기념책(말라기 3:16) 이 책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행을 기록합니다.</p>

따라서 이 중 어떤 책이었든 간에 조사를 위해 펼쳐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들이 변호사의 요약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이 법정에 가지고 들어가는 노트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들"은 "작은 뿔"의 자랑과 신성모독에 대한 응답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적그리스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은 뿔"의 모든 죄악적인 생각, 말, 행동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이사야 65:6-7; 히브리서 4:13). 즉,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은 정확하고 정당할 것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11 “I watched then because of the sound of the pompous words which the horn was speaking; I watched till the beast was slain, and its body destroyed and given to the burning flame. 12 As for the rest of the beasts, they had their dominion taken away, yet their lives were prolonged for a season and a time.

Daniel tells us here that he was drawn in particular to the words uttered by the little horn. The horn speaks in a pompous or boastful way. The final global dictator, the man we commonly call the Antichrist will be characterized by his boastful, blasphemous speech. The fact that he has risen to assume this position tells us much about the kind of man he will be.

He will exude massive amounts of power and charisma. Why else would people be drawn to him. He will be confident and self-assured. He will have the ability to convince people that he has the answers to the world's problems.

Scripture tells us a little about the things that will come forth from his mouth. This is what we are told about him in Revelation chapter 13.

5 And he was given a mouth speaking great things and blasphemies, and he was given authority to continue for forty-two months. 6 Then he opened his mouth in blasphemy against God, to blaspheme His name, His tabernacle, and those who dwell in heaven. (Revelation 13:5-6)

The Antichrist will have nothing good to say about God. These verses highlight that the Antichrist, as his name implies stands against everything good, pure and holy. He will hate God and all He represents. He will not however be a silent hateful witness. He will use his platform to curse and denounce God and all he stands for. Thankfully the Antichrist's reign of terror will be short-lived. God will not permit his grip over the world to last long. Judgement is soon rendered. The beast is judged to be guilty and the sentence is death. As we read here he will be slain and his body will be thrown into the burning flame. This also means that the global kingdom over which he rules will also crumble and collapse.

I believe that Daniel is speaking of the end time Antichrist. Other interpreters of this passage have a different view. They argue that if we literally interpret the term “Antichrist” to mean anyone who rejects Jesus Christ we can identify many such Antichrist figures throughout history. It's hard to

disagree. This is Satan's world, and he stands opposed to God. It makes sense then that he would continually be producing or equipping people to cause believers trouble.

Some throughout church history have thought that this part of Daniel's prophecy was fulfilled when the Greek ruler Antiochus Epiphanes was killed in battle in 164 BC. Antiochus became infamous for his desecra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He raided the temple, stole its treasures and most shocking of all set up an altar to Zeus upon which pigs were sacrificed. Others look to the collapse of the Roman Empire in 476 AD. Other notable candidates for the antichrist over the centuries have been the pope, Adolf Hitler and just about every US president!

I am not convinced by these suggestions. The final Antichrist is yet to be revealed. He may be living at the present or he may be yet to emerge. However one thing we do see throughout history is the fate of all those who oppose God. All those who rise up and stand against God and His people are ultimately doomed. God is in the business of destroying antichrists.

I believe Daniel is being given a vision of what will befall the Antichrist and not an antichrist. The demise of the Antichrist is given to us in Revelation chapter 19.

20 And the beast was taken, and with him the false prophet that wrought miracles before him, with which he deceived them that had received the mark of the beast, and them that worshipped his image. These both were cast alive into a lake of fire burning with brimstone. (Rev 19:20)

The “little horn” is annihilated completely. He is wiped from existence along with the system he had put in place.

We then learn about the fate of the other nations existing at that time. We know that throughout human history empires have seamlessly bled from one to another. One empire ends as another conquers it and takes over. But here at the end of the ages we see a new pattern emerge. The remaining beasts have their power removed, but they are permitted by God to go on existing for a time. So when the Antichrist system is destroyed other nations will continue to exist. They will continue to function for a short time.

This death of the Antichrist signals a momentous moment in human history. His death brings to an end the era of Gentile kingdoms which began all the way back with King Nebuchadnezzar. A completely new Kingdom of God's choosing is now set to emerge. We will move from human dominion to divine dominion. Let us read on.

11 그 작은 뿔이 자랑하며 떠들어대는 소리에 내가 보니 넷째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는 절단되어 불 속에 던져졌으며 12 그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일정한 기간 동안 생명만은 살아 남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서 작은 뿔이 한 말이 다니엘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뿔은 거만하게 자랑하면 떠들어 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마지막 세계적 독재자는 거만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지위를 차지하기까지 올라간 것은 그가 어떤 인간일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과 카리스마를 발산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입에서 나올 것에 대해 약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3 장에서 그에 대해 기록하길

5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요한계시록 13:5-6)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 좋은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들은 그의 이름이 말해 주듯이 적그리스도가 선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모든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는 증오가 가득찬 증인으로서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저주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적그리스도의 공포의 통치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을 오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판이 곧 내려집니다. 짐승은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서 읽은 것처럼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은 활활 타는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또한 그가 통치하는 세계 왕국도 무너지고 붕괴될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 antichrist"라는 용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면서 역사 전반에 걸쳐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은 아주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며 그는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신자들을 괴롭히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일부 사람들은 다니엘의 예언 중 이 부분이 기원전 164년 그리스 통치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Antiochus Epiphanes 가 전투에서 죽었을 때 성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는 성전을 습격하고 보물을 훔쳤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돼지를 제물로 바친 제우스 제단을 성전 내에 설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원후 476년 로마 제국의 붕괴가 이 예언을 성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세기 동안 교황,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살고 있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파멸합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니엘이 일반적인 적그리스도가 아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the Antichrist 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멸망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19:20)

"작은 빨"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체제와 함께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 그 당시 존재했던 다른 국가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제국이 끝나면 그 다음 제국으로 원활하게 흘러갑니다. 한 제국은 다른 제국이 그것을 정복하고 차지하면서 끝납니다. 하지만 종말의 시대에는 그와 다른 새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잠시 동안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체제가 멸망할 때 다른 나라들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계속 기능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 역사에서 중대한 순간을 알립니다. 그의 죽음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기로부터 이어져온 이방인 왕국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완전히 새로운 왕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갈 것입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13 “I was watching in the night visions,
And behold, *One* like the Son of Man,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He came to the Ancient of Days,
And they brought Him near before Him.**

As Daniel was watching and taking in the scene he sees a new person entering the scene. He is described as being **one like the Son of Man**. To whom does this title refer? As I may have said previously the title “son of man” is used in two different ways in the bible. In the Old Testament it is used of the prophet Ezekiel for example. On 90 occasions he is referred to as a “son of man.” In this case it simply means “man” or “human being.” In ancient thinking “Son of” can be understood as meaning a “member of.” It is simply a way of stressing someone's humanity. We might think of it as follows, God is God, but Ezekiel is just a “son of man.”

We can also use this same term to refer to the Lord Jesus Christ. He was fully man and fully God. Therefore we can use the term to emphasise His humanity.

However we all know that to say that Jesus is the “**Son of Man**” means much more than just affirming that Jesus was a flesh and blood man (human being). The Lord Jesus Himself frequently (82 times to be precise) referred to Himself as **THE Son of Man**. Why did our Lord use this term? Simply because it points to His identity as the Messiah. The anointed and chosen one. So when Jesus refers to Himself in this way He means that He is the epitome of humanity. That He is the Sinless One, humanity perfected, the one to finally reconcile God and man.

This claim to deity is reinforced when we read that the Lord Jesus came with the clouds of heaven. The phrase “clouds of heaven” reminds us of His promise to return in glory and reign on the earth. Matthew in his gospel describes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following way;

Then the sign of the Son of Man will appear in heaven, and then 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 mourn, and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with power and great glory. (Matt 28:20)

Jesus is not at this time making His return to earth. He is instead coming on the clouds and arriving before the Father (the Ancient of Days). The Lord Jesus is being presented before God in order to receive kingship. This is outlined in our final verse for today.

13 내가 또 밤의 환상 가운데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보고 있는 동안 그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인자 같은 이** **One like the Son of Man** 로 묘사됩니다. 이 칭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자 son of man"라는 칭호는 성경에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90 번이나 "인자"라고 불렸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사람" 또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고방식에서 "~의 아들 son of"은 "~의 구성원 member of"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인성 humanity 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지고, 에스겔은 그저 "인간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용어 the Son of Man 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fully man and fully God 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그분의 인간성 humanity 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자 **the Son of Man**"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신을 가진 사람(인간)이라고 단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주(정확히 82

회) 스스로를 인자 **THE Son of Man** 라고 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칭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용어가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정체성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기쁨부음 받고 택함 받은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실 때, 자신이 인류의 전형임을 의미하십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마침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분임을 뜻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신성 deity 을 강조합니다. "하늘의 구름 clouds of heaven"은 영광 가운데 돌아와서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30)

오늘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와서 아버지(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옵니다. 주 예수님은 왕권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4 Then to Him was given dominion and glory and a kingdom, That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should serve Him.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Which shall not pass away, And His kingdom the one Which shall not be destroyed.

What a wonderful way for Daniel's first vision to end. The Lord Jesus Christ being ushered in and standing before God the Father. Jesus is to receive glory, dominion and a kingdom from the Father. Or to put it another way The Father is investing the Son with supreme power.

What Daniel is witnessing here is the eventual end of God's marvellous plan. This event is also previewed in Revelation chapter 5 (Rev 5–14). When Jesus,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is formally given rule of earth, the occupants of heaven proclaim His worthiness.

So allow me to spell out how this world ends. At the end of the seven year tribulation Christ returns to earth in glory. The Lord Jesus Christ begins ruling the world directly and in person (Matthew 25:31; Revelation 11:15). What is being described to us here by Daniel is the fifth and final kingdom that will rule on earth.

We are told that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should (will) serve Him. This speaks to Christ's reach as ruler. He will have global power to rule and reign. We are speaking here of the millennium. The literal 1000 year reign of Christ on earth. Jesus will reign as king over Israel and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Isaiah 2:4; 42:1). The world will live in peace (Isaiah 11:6–9; 32:18), Satan will be bound (Revelation 20:1–3), and, at the beginning, everyone will worship God (Isaiah 2:2–3).

Furthermore His kingdom will be eternal. It will last forever. The other four kingdoms destroyed each other in turn. But no kingdom will ever destroy God's kingdom.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Satan will be unbound and he will lead a rebellion. This fails, he is judged and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Following this we will see the creation of the New Heavens and Earth. It is this Kingdom that will never pass away.

In this dramatic vision Daniel had witnessed a vast sweep of human history. It began with the empire of Babylon and closed with the 1000 year reign of Christ upon the earth. Although in some ways the vision made for distressing and uncomfortable viewing it also provided great comfort. God's people in exile could at least take solace from the fact that one day the prophecies God had given them would be fulfilled. One day their Messiah would reign on the throne of David. God had not forgotten them.

As believers today we can also take hope in God's promises. Daniels amazingly accurate vision of

world history proves that God really is in control. We are not passengers on a driverless bus careering wildly out of control. God is in the driver's seat. This means we need not be fearful about what the future holds. We know what's coming. The next event to take place in God's unfolding plan is the rapture of the church. We eagerly await the call to join Christ in the air. As the world continues to grow gloriously dark around us this might not be far off.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the interpretation of Daniel's vision.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주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그 권세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의 결말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되어 서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받으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권 supreme power 을 부여하십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목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궁극적인 결말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5 장(요한계시록 5-14 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인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지상의 통치권을 받으셨을 때, 하늘에 있는 자들은 그분의 합당함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년 환난이 끝날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친히 직접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마태복음 25:31; 요한계시록 11:15). 이 구절에서 다니엘이 묘사하는 것이 바로 지상을 통치할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왕국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년 왕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실 것입니다(이사야 2:4; 42:1). 세상은 평화롭게 살 것이고(이사야 11:6-9; 32:18), 사탄은 결박될 것이며(요한계시록 20:1-3), 그리고 초창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이사야 2:2-3).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다른 네 왕국은 차례대로 서로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사탄은 잠시 풀려나 반역을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할 것이고, 그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왕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극적인 환상에서 다니엘은 인간 역사의 광대한 흐름을 목격했습니다. 바빌론 제국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천년 통치로 끝납니다. 한편으로는 이 환상이 괴로움과 불편한 시각을 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위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유배 중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언이 언젠가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계 역사에 대해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여준 환상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통제 불능으로 질주하는 운전자가 없는 버스의 승객이 아닌

니다. 하나님께서 운전석에 계십니다. 즉,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다.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은 교회의 휴거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부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주변 세상이 계속해서 극도로 어두워지는 걸 보면 이는 어떤 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We win in the end

In my youth I was a massive sports fan. My mother used to say I was “football crazy.” I think she was probably right. Whenever I got the chance I played football, read about football, listened to it on the radio, and watched it on the TV. One of my great passions was to watch football games. The pleasure we derive from watching sports comes from the unpredictability of the outcome. The tension and excitement derived from not knowing who will win. When teams are equally matched we get the best games. One individual piece of skill or brilliance can settle the result. It makes for compulsive viewing. If however for whatever reason the result can be predicted much of the pleasure is reduced. It's why many of the group games in the World Cup are not that enjoyable or memorable. It's fairly obvious that the top teams will beat the smaller less known teams. Will New Zealand beat Brazil or Panama beat Italy? When we know, or can guess who will win what's the point in watching.

But sport is very different to life. We want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life. We crave certainty and assurance. We want to feel secure and not have undue worries about things. We want to know what happens in the end. Of course the events of life are not easily predictable. We cannot know what will happen as the future unfolds. It is easy therefore to become anxious and worried about what may occur.

So living as we do in a world of uncertainty it's good to have one rock solid thing upon which we can rely. Something that we can cling to as troubled waters swirl around us. Daniel's vision reminds to us that God does indeed have a plan. He knows what is going to happen. We can take comfort in knowing that history is more than the distressing, terrifying rule of beasts. The beasts are not running the show. God is always the one in charge.

Therefore we can take great solace in knowing how all things will play out.

Though we will all face ups and downs in life we ultimately know the result. We know how it all ends. When we are in Christ we win. Our saviour's blood has brought us the reward of eternal life in God's presence.

1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스포츠에 열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축구에 미쳤다"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옳았을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구를 하고, 축구에 대해 읽고, 라디오에서 듣고, TV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축구 경기 보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스포츠를 보는 즐거움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데서 오는 긴장감과 흥분. 실력이 동등한 팀끼리 맞붙으면 최고의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술 또는 뛰어난 재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시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를 미리 안다면 즐거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월드컵의 많은 조별 경기가 그다지 즐겁지 않은 이유입니다. 상위 팀이 덜 알려진 약한 팀을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

니다. 뉴질랜드가 브라질을 이길까요? 파나마가 이탈리아를 이길까요? 누가 이길지 알 수 있다면 경기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삶은 스포츠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삶에서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확실성과 확신을 갈구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길 원하고,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바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험난한 파도가 몰아칠 때 붙잡을 수 있는 바위. 다니엘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다. 인류 역사가 괴롭고 공포를 자아내는 짐승들의 통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위로가 됩니다. 짐승들이 주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는 데서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기쁨을 겪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를 압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구세주의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영생이라는 보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 Christ is coming

When will Christ return? That's a great question. Speculation on this question has fuelled countless podcasts, TV shows, books, discussions and sermons. The answer is we don't know. God, very wisely chose not to tell us when the Lord Jesus will return. I encourage you to run away from anyone who tells you they know, or even worse that God has told them when this will happen. All we can say with any certainty is that Jesus will return. Daniel and many other Holy Spirit inspired writers in scripture affirm this. We can rest assured that it will happen. Will it be today, tomorrow, next week or in 50 years? Only God the father knows.

How then are we to live with this reality? Well, we are to live in the hope and expectation that this could occur at any time whilst also continuing to live good God pleasing lives. Or to put it more simply, we are to continue to live well whilst we wait. God does not expect us to spend our time staring up at the sky. Is that Jesus? Oh no, it's just a pigeon. He expects us to continue working and living in the meantime. There is much Kingdom work to be done. Many people to share the gospel with. The sick, homeless, orphaned and widowed to care for.

Christ is coming. But since we do not know when that will be we need to adopt a sense of urgency. Let us sensibly and wisely use the time we have.

2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수많은 팟캐스트, TV 쇼, 책, 토론, 설교가 이 질문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정답은 우리는 모른다 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현명하게도 주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자기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포함하여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다른 많은 성경 저자들이 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다음 주 또는 50년 후에 오실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글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든지 오실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속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계속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만을 응시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기 예수님인가? 오, 아니, 그냥 비둘기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계속 일하고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왕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병자, 노숙자, 고아, 과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올바르게 현명하게 사 용합시다.